

#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선원전 다례(茶禮)와 다기(茶器)

구혜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미술사 전공  
human180@daum.net

- I. 머리말
- II. 선원전 다례의 연원과 성격
- III. 선원전 다례진설과 절차
- IV. 선원전 다기의 구성과 특징
- V. 맺음말

## I. 머리말

---

조선시대 선원전(璿源殿)은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영정을 봉안하고 제향을 거행한 전각인 진전(眞殿) 중 하나이다(도1, 도2). 조선 초기의 선원전은 궁궐 내 문소전의 전각으로 운용되었고 이때는 별도의 제향을 올리지 않고 최소한의 의식만 치렀다.<sup>1</sup> 이후 임진왜란시 문소전과 함께 선원전도 소실되었다가 숙종 21년(1695)에 창덕궁 춘회전(春輝殿) 내에 숙종 어진을 봉안하고 선원전이라 칭하면서 다시 운영되기 시작했다.<sup>2</sup> 선원전에 어진(태조·숙종·영조·정조·익종·순조·헌종)들을 순차적으로 봉안하면서, 선원전은 도성 내 가장 많은 어진을 봉안한 장소가 되었다.

선원전은 제사의 중복과 어진을 모신다는 점에서 유교식 제향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지만 효(孝)라는 명분 속에서 조선후기부터 견실하게 유지되었고 왕이 수시로 친행해 공간의 권위를 높였다. 한성 내 영희전을 비롯해 지방 곳곳에 여러 진전이 존재했지만, 왕이 진전에 행례하기 위해 자주 출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비해 선원전은 궁궐 내에 조성되어 위치상 왕의 삶의 반경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진전이었다. 이런 까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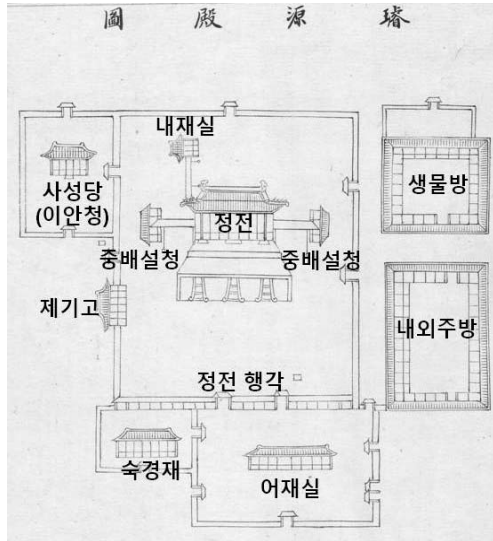
- 
- 1 문소전은 태조와 신의왕후 한씨의 초상화를 모시던 원묘이다. 태조는 첫 번째 부인인 신의왕후 한씨의 신주를 모시기 위해 인소전을 조성했는데 태조가 승하하자 태조의 혼전으로 사용하면서 문소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태조와 신의왕후의 초상화를 함께 봉안하면서 진전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太宗實錄』, 태종7년(1407) 11월 11일; 『太宗實錄』, 태종8년(1408) 8월 26일). 이후 1432년 문소전과 광효전을 합쳐서 원묘를 단일화하고 태조를 포함한 5대 선왕의 위패를 모시면서 문소전의 역할은 진전에서 사당으로 바뀌었다(『世宗實錄』, 세종14년(1432) 10월 29일).
  - 2 선원전에는 숙종 21년에 숙종어진, 정조 즉위년에 영조어진, 순조 원년에는 정조어진, 헌종 12년에는 순조와 문조 어진을, 철종 2년에는 헌종 어진을 차례로 봉안하였다. 이어 광무 3년에는 태조의 어진을 모셔 대한제국기에는 총 7분의 어진이 선원전에 봉안되었다.

선원전은 왕이 수시로 행차해 어진을 전알하고 의례를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매김했다(도2).<sup>3</sup>

또 선원전은 종묘가 대신할 수 없는 일상적이고 친숙한 제향 공간으로써 기능했다.<sup>4</sup> 선원전은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차를 올리는 의식인 다례(茶禮)가 거행된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종묘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도1-태조 어진 복원모사도,  
284×163.5cm, 국립고궁박물관



도2-선원전도, 『선원전진전중전도감의궤』,  
1901(광무5), 국립고궁박물관

- 3 선원전으로의 행례 횟수는 영조대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며 고종대 가장 많은 횟수로 집계된다. 강성금, 「조선시대 진전 탄신다례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도2>의 <선원전도>에 표시된 건물명은 안선희의 연구(2015)를 따랐다. 안선희, 「조선시대 진전 건축과 운영」, 『조선 왕실의 어진과 진전』(2015), 230쪽. 더불어 필자가 기존 연구에서 선원전도와 함께 제시한 각 전각 명칭에 착오가 있었음을 본 지면을 통해 밝힌다. 구혜인, 「대한제국기 경운궁 선원전 禮器의 구성과 함의」, 『美術史學研究』 288(2015), 131쪽, 도4.
- 4 이육, 「조선시대 제향다례의 자료와 특징」, 신명호 외,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해설과 역주』(민속원, 2008), 275쪽.

우리나라 왕실 음다(飲茶)문화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sup>5</sup> 고려시대 차생활이 더욱 발달하였고 왕실 차원에서 크고 작은 행사 때 다례를 자주 행하였다. 고려시대 다례는 연등회, 팔관회, 정조, 사신 접견뿐만 아니라 사형 판결 의식에도 거행되기도 했다.<sup>6</sup> 이옥의 연구(2008)에 따르면 망자에 대한 의례에 차를 올리는 것 역시 삼국시대에 이미 나타나지만 ‘다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는 않았다.<sup>7</sup>

국내 기록에서 ‘다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조선시대 태종 1년(1401)으로 임금이 태평관에서 중국 사신들과 더불어 다례를 행하는 접빈다례의 형태에서 다례란 용어를 처음 확인할 수 있다.<sup>8</sup> 조선 초부터 왕실다례는 접빈다례, 진연다례, 제향다례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행해져 대한제국기까지 면면히 이어졌으나, 제사에서만큼은 차보다는 술을 주로 사용하였다.<sup>9</sup> 예외적으로 다례를 자주 거행하는 제사공간이 일부 존재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선원전에서 거행된 다례의 종류와 빈도수가 유달리 두드러진다.

- 
- 5 통일신라 시기 다례와 중국 다구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이송란, 「中國法門寺地宮茶具와 통일 신라 茶文化」, 『先史와 古代』 32(2010).
  - 6 고려시대 다례와 다기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장남원, 「고려시대 茶文化와 靑瓷-청자茶具를 중심으로」, 『美術史論壇』 24(2007); 「소비유적 출토 도자(陶器)로 본 고려시대 청자의 수용과 다례(茶禮)의 관계」, 『역사와 담론』 59(2011); 「물질문화 관점으로 본 고려청자」, 『미술사와 시각문화』 18(2016) 등.
  - 7 국내에서 다례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로, 왕실 의례에 차를 사용한 기록이 확인된다. 고려시대에는 차문화가 크게 융성하였으나, 차의 의례적 속성을 강조한 용어인 ‘다례’라는 명칭은 기록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이옥(2008), 위의 논문, 270쪽.
  - 8 『太宗實錄』, 태종1년(1401) 2월 14일.
  - 9 조선시대 기록에 다례, 朔望茶禮, 晝茶禮, 誕辰茶禮, 別茶禮, 告由茶禮란 용어는 있으나 宮中茶禮, 接賓茶禮, 祭享茶禮, 宴享茶禮, 外交茶禮, 薦新茶禮 등은 연구자들이 다례가 행해지는 공간이나 목적에 따라 조어한 용어이며 원전 기록에는 이와 같은 용어는 쓰이지 않았다(신명호 외,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 해설과 역주』(민속원, 2008). 하지만 본고에서는 다례의 목적을 동시에 드러내기 위해 ‘목적+다례’의 형식으로 조어진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례가 선원전 제례의 특수성을 반영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점은 ‘차’라는 제수뿐만 아니라 물질인 ‘제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선원전 다례에 사용된 각종 제기들도 왕실의 일반적인 제기들과 차이가 있고 이에 관한 문헌사료도 현전하여, 선원전 다례와 다기에 관한 연구는 선원전 의례뿐만 아니라 왕실 다례와 다기의 관계망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선원전에서 다례가 빈번히 거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동안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선원전 다례의 진설방식과 제기와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선원전 다례와 다기를 통해, 조선 왕실 제사와 제기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관련 연구들의 논의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Ⅱ. 선원전 다례의 연원과 성격

조선왕실의 유교식 제향에서는 차보다는 술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영향으로 왕실 제향에 차를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점차 술을 올리는 의례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태종대 예조에서 태조강헌 대왕과 신의왕후 요전(燒奠)에만 술을 쓰고 나머지 요전에는 모두 다탕(茶湯)을 써 예에 합당하지 않다고 아뢰니, 태종은 선왕선후의 기신재제(忌辰齋祭)에 모두 술과 감주(甘酒)를 쓰라고 명하였다.<sup>10</sup> 이때 예조는 『서경』 「주교」의 ‘제사에서 이 술을 쓰라’는 대목을 거론하며 제향에서 술을 사용하는 오랜

---

10 『太宗實錄』, 태종16년(1416) 9월 19일.

전거를 들어 예전부터 제사에 술을 쓰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sup>11</sup> 「주고」는 술을 경계하는 주계(酒戒)의 내용이고 조선왕실에서도 절주(節酒)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주서」를 자주 언급하지만, 동시에 「주서」마저도 제사에서 만큼은 술을 쓰게 했다는 사실을 들면서 오히려 제사에서 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역설적인 근거로 활용하였다.<sup>12</sup> 이처럼 제사에서 는 술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고했다.<sup>13</sup>

하지만 왕실의 제사에서 다례라는 형식으로 차를 올리는 의례도 여전히 존속했다.<sup>14</sup> 국내 기록에서 ‘다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조선시대 태종 1년(1401)으로 임금이 태평관에서 중국 사신들에게 다례를 행하는 접빈다례의 형태에서 다례란 용어를 처음 확인할 수 있다.<sup>15</sup> 조선 초부터 왕실다례는 접빈다례, 연향다례, 제향다례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행해졌다. 그 중 제향다례는 유교식 제향의 일반적 형태는 아니었으나 중단되지 않고 꾸준히 존속했으며, 선원전 다례는 왕실 제향다례를 대표하는 의례가

11 『書經』 下, 周書, 酒誥.

12 영조는 금주령을 내리면서 종묘제사도 술이 아닌 예주 즉 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전무후무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해 집의(執義) 이민곤(李敏坤)이 「주서」의 내용 중 “제사에만 술을 쓰게 하였다. 하늘이 명을 내려 우리 백성에게 비로소 술을 만들게 하였으니, 오직 큰 제사에만 쓰게 하라”는 대목을 들어 제사에서 다시 술을 사용하는 구절을 회복할 것을 아뢰기도 하였다.

13 이러한 원칙이 잠시 바뀌었던 때가 영조가 금주령을 내린 시기였다. 이 때 종묘제사에서도 술 대신 예주를 사용할 정도로 영조의 금주조치는 매우 강력하게 실행되었다. 『英祖實錄』, 영조31년(1755) 9월 8일; 『승정원일기』, 영조31년(1755) 9월 11일. 이후 태묘에 다시 술을 사용한 것은 기록상 영조43년 이후부터로 확인된다. 『英祖實錄』, 영조43년(1767) 1월 15일.

14 국내에서 다례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로, 왕실 의례에 차를 사용한 기록이 확인된다. 고려시대에는 차문화가 크게 융성하였으나, 차의 의례적 속성을 강조한 용어인 ‘다례’라는 명칭은 기록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이욱(2008), 앞의 논문, 270쪽). 고려시대에는 더욱 발달하여 조정과 왕실 차원에서 연등회, 팔관회, 정조, 사신 접견 등 크고 작은 행사 때 다례를 행하였다.

15 『太宗實錄』, 태종1년(1401) 2월 14일.

되었다.

조선시대 선원전 다례는 왕실 내부에서 행해지는 가족적인 규모의 의례로 운영되었다. 선원전 다례의 성격은 순조대 정순왕후가 선원전 다례에 관해 언급한 내용, 즉 “선원전은 대내에서 정성을 표하는 곳이므로 종묘의 남전(南殿)과는 차이가 있다. 내외 자손이 다례를 행하는 것은 이른바 집안사람이 거행하는 예이다”라는 부분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남전은 영희전을 칭하는 용어로, 선원전을 영희전보다 더 가족적인 예를 거행하는 장소로 구분했고 선원전 의례에서도 특별히 다례를 언급하였다.<sup>16</sup> 이를 통해 보면 한성 내 함께 존재한 진전인 영희전과 비교하여 선원전의 다례는 궁궐 안의 내부적인 공간에서 비공식적인 의례로써 거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선원전 의례가 일반적인 유교식 제향보다 내부적이고 비공식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사실은 정조의 언급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정조 2년(1778) 정조는 선원전 제물을 대내(大內)에서 준비하고 거행하여 제기의 수에 법식이 없기 때문에, 많게는 100기(器)에 가까운 제기를 차린다고 언급하면서 제기를 46기로 줄이라고 명한다.<sup>17</sup> 그리고 선원전 제향은 사시(四時) 제향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감정을 절제하고 예의에 맞게 하는 도리로 볼 때 이대로 따라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위 내용을 통해 종묘제사의 제물과 제기 마련은 예조에서 담당한 것에 비해 선원전 제례에 소용된 제물과 제기는 대내에서 담당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종묘제기는 건국 초부터 제기의 기종, 형태, 크기, 재료, 문양, 진설방식 등이 정해지고 국가전례서를 통해 공시되었다면, 선원전 제기는 법식의

16 『日省錄』, 순조 2년(1802) 7월 26일. 영희전은 종묘의 남쪽에 있어 남전 혹은 남별전이라 불렸다.

17 『日省錄』, 정조 2년(1778) 1월 20일.

제한 없이 설행되다가 정조대 이르러 제도를 마련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정조의 언급을 통해 선원전 제향에 관해 정(情)과 예(禮)의 적당한 접점을 어디에 둘 고민하고 논의했던 상황을 읽을 수 있다.

선원전은 의례의 종류와 절차, 성격, 제기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종묘와 달랐고, 같은 진전인 영희전과도 의례 공간으로써의 인식과 역할에 차이가 존재했다. 선원전은 선왕의 생활 영역 안에 차려진 제향공간이라는 점에서 종묘와 영희전과 달리 일상생활과 맞닿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선원전의 다례는 유교식 제사에서는 보기 힘든 의례이자 의식, 제물, 제기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후기 선원전 다례는 어디에서부터 연유되었던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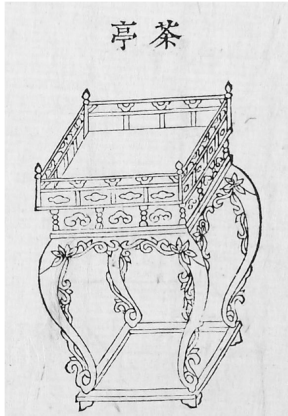
우선 선원전 다례는 왕의 생시에 술과 함께 차를 음용하던 일상생활과 연결된다.<sup>18</sup> 왕의 일상음식에 대한 기록이 희소하여 일상에서 차를 즐기던 구체적인 방식은 알 수 없으나, 『세종실록지리지』에 경상도와 전라도의 여러 지역에서 차를 공급 받았던 것으로 보아 왕실에서의 차 수요가 적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sup>19</sup> 또 차를 담당한 관원이 배치된 부서나 관직명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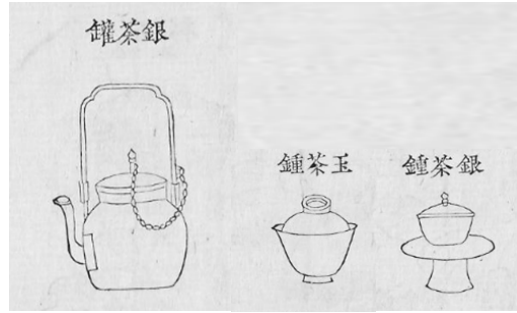
18 조선왕실 의례에 다례가 거행되는 주요 의례는 중국 사신들을 대접하는 영접의례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선원전 다례는 빈례의 다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하고 왕의 일생을 위주로 분석하겠다.

19 『세종실록지리지』 중 '작설차'가 기록된 지역은 경상도 진주목 하동현, 경상도 진주목 고성현, 경상도 경주부 울산군, 전라도 전주부 고분군, 전라도 전주부 고분군, 전라도 장흥 도호부 고흥현, 전라도 전주부 옥구현, 경상도 경주부 밀양 도호부, 전라도 나주목, 경상도 진주목 산음현이 있다.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 중 차가 기록된 지역은 전라도 장흥 도호부 낙안군, 전라도 남원 도호부 순창군, 전라도 전주부 부안현, 전라도 장흥 도호부, 전라도 순천 도호부, 전라도 장흥 도호부 무진군, 전라도 장흥 도호부, 전라도 담양 도호부, 전라도 장흥 도호부, 전라도 장흥 도호부 보성군, 경상도 경주부, 경주도 밀양 도호부, 전라도 장흥 도호부 동복현, 전라도 남원 도호부 광양현, 경상도 진주목 진해현, 경상도 진주목, 경상도 진주목 함양군, 전라도 전주부 정읍현, 전라도 장흥 도호부이다.





도3-1-다정, 『임진찬의궤』, 1892(고종29), 장서각



도3-2-은다관, 옥다종, 은다종

다방(茶房), 다색(茶色), 내시다방(內寺茶房), 다방제조(茶房提調), 다비(茶婢), 다반봉지관(茶盤捧持官) 등이 존재하고, 미음다반(米飲茶盤) 등 다양한 차의 명칭들도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왕실에서 사용하는 그릇에 다종(茶鍾), 다관(茶罐), 다병(茶瓶), 다시(茶匙), 금구차보아(金具茶甫兒), 다반(茶盤), 다상(茶床) 등 차와 관련된 다구명칭들도 알 수 있다.<sup>20</sup>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모두 왕의 일상적인 음다문화였을 뿐만 아니라 다례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왕실 의례 중 다례가 거행되는 의례로 왕실 잔치인 연향의례, 외교의례, 혼례, 조하의, 양로의 등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연향의례 속 다례의식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연향의례에서 차를 올리는 진다(進茶)의례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 영조 대부터이다. 영조 42년(1766)에 거행된 진연에서 처음으로 각종 다기를 올려놓는 다탁(茶卓)이 등장하여 진다의례

20 『太祖實錄』, 태조4년(1395) 9월 29일; 『世宗實錄』, 세종즉위년(1418) 12월 20일; 『世宗實錄』, 세종31년(1449) 2월 24일; 『世宗實錄』, 세종32년(1450), 윤1월 2일; 『世宗實錄』, 세종32년(1450) 윤1월 7일; 『承政院日記』, 인조4년(1626) 6월 17일; 『正祖實錄』, 정조19년(1795) 윤2월 10일; 『萬機要覽』, 財用遍, 信使.

의 사례가 확인된다.<sup>21</sup> 이때의 진다는 영조의 금주령 조치와 관련되어 시행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영조 43년(1767년) 금주령이 완화된 이후에도 진연의례 속에 진다의식이 포함되는 계기가 되었다.<sup>22</sup> 이어 정조대 『춘관통고』의 연향부분에 공식적으로 진다의례가 포함된다.

현전하는 조선후기 진찬의례에 진다의식과 더불어 다정(茶亭) 및 각종 다구(茶具)에 관한 도설(圖說)들이 포함된 것을 보아도 조선후기 왕실 연향에서 차를 올리는 의식이 거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23</sup> 조선후기에 편찬된 연향 의례 도설 속 은다관(銀茶罐), 옥다종(玉茶鍾), 은다종(銀茶鍾) 등의 다기들을 통해 당시 왕실 다기의 형태도 확인할 수 있다(도3). 이로써 다례가 왕실의 일상 뿐 만 아니라 연향에도 거행되면서 궁중다례가 보다 풍부해졌다고 할 수 있다. 또 연향 의례에서 보이는 다기의 기종과 조형은 선원전에서 사용된 다례용 제기와도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다례가 왕의 일생생활 혹은 경사를 맞아 행해지는 다례라면 국장(國葬) 기간과 탈상(脫喪) 이후의 제향공간에서 거행된 다례도 있다. 우선 국장기간 중 상장례 공간에 끊임없이 차를 올렸는데 대표적으로 주다례(晝茶禮)가 있다(도4). 주다례는 왕과 왕비가 살아계실 때 점심을 드신 후에 행하던 음다를 본떠 국상 중 저녁 식사 이전에 차를 올리던 의례이다.<sup>24</sup> 흥례기간 동안 주다례를 조성한 근거는 문소전(文昭殿)의 예에

21 『承政院日記』, 영조42년(1766) 8월 27일.

22 신명호, 「조선시대 진연다례의 자료와 특징」,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 해설과 역주』(민속원, 2008), 202-206쪽 참고. 이미 고려시대부터 大宴에 진다하는 의식이 포함되어 왕실 의례로써의 연원은 오래되었다.

23 『己丑進饌儀軌』(1829); 『戊申進饌儀軌』(1848); 『戊辰進饌儀軌』(1868); 『丁亥進饌儀軌』(1887); 『壬辰進饌儀軌』(1901); 『辛丑進饌儀軌』(1902).

24 상기 중 매일 정해진 낮 시간에 행하는 주다례 외에 별다례란 형식도 생겼는데, 고유다례, 절기다례, 삭망다례, 능소다례, 별주다례 등 다양한 형태의 다례가 행해



도4-1-주다례에 진설된 작설차 도4-2-작설차 1좌와 잔 3좌  
진설 위치(화살표 표시 부분),  
『정조빈전훈전도감의례』, 규장각

따랐다. 문소전은 원래 태조와 신의황후의 혼전(魂殿)으로 사용되던 전각으로 잠시 초상화를 모시던 진전(眞殿)으로도 사용되었는데, 문소전에서 상기가 끝난 이후에도 조석상식과 주다례를 행했다. 성종대 공혜왕후 혼전의 담제(禪祭) 뒤의 각 제사, 조석상식, 주다례를 문소전의 예에 의하여 행하길 한다고 하여 흥례의식의 일부가 문소전 의례에 바탕을 두고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25</sup> 또 성종대 의묘(懿廟)에 덕종의 위판과 영정을 봉안하면서 청개, 홍개, 봉선, 작선의 배열방식이나 대소 제향, 조석수라, 주다례, 집기, 잡물, 물선 등을 모두 문소전의 예를 따르게 하였다.<sup>26</sup> 이를 통해 문소전에서 차를 올리던 의식이 왕실의 흥례기간 동안에 주다례를 올리는 의식으로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상기가 끝난 이후에도 영정을 진전에 안치하면서 문소전의 예(例)를 쫓게 하였는데, 이러한 전통이 문소전의 부속 전각이자 후일 궐내 진전으로 존재했던 선원전의 다례의식의

졌다.

25 『成宗實錄』, 성종6년(1475) 6월 9일.

26 『成宗實錄』, 성종6년(1475) 10월 12일.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왕실 제사 중 속제(俗祭) 공간에서 행해지는 다례도 있었다. 속제는 시속(時俗)과 인정(人情)에 따라 지내는 제사로 다례는 속제의 제향 방식 중 하나였다.<sup>27</sup> 속제의 측면에서 보면 선원전 다례의 기원은 세조의 어진을 모신 봉선전(奉先殿)에서 술 대신 차를 사용하였던 의례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다. 광릉(光陵)의 원찰인 봉선사(奉先寺)에 봉선전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술 대신 차를 사용하였다. 성종 5년(1474)에 봉선전의 대소 제사에 술을 사용하지 않고 차로 대신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sup>28</sup> 조선 초기 문소전의 별전으로 선원전이 존재했을 때에는 선원전에서 별다른 치제(致祭)를 하지 않았지만, 조선후기 선원전에서 다례를 거행하는 배경에는 불당에 어진을 모시고 불교식으로 차를 올리던 의례와 유사한 속성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sup>29</sup>

이 외에도 조선의 국왕이 생전에 참여한 다례 중 중국 사신들과의 만남에서 행하는 다례도 빼놓을 수 없다. 중국과의 외교다례는 조선의 다례문화에서 중요한 다례이면서 국왕으로서 나라의 큰일이 발생할 때마다 거행된 다례라는 점에서 국왕이 생전에 치른 다례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세종실록오례의』에는 가례, 빈례, 흉례 의식 중 중국과 관계된 다양한 성격의 외교다례가 기록되어 있다.<sup>30</sup> 물론 외교다례가 선원전 다례 시행

27 이육, 『조선 왕실의 제향공간』(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15쪽.

28 이육(2008), 앞의 논문, 278쪽.

29 선원전 다례는 넓은 범주에는 길례의 속제에 속하지만 음복례가 생략되어 길례의 속성이 약화된 의례이기도 하다. 이육(2008), 위의 논문, 283쪽.

30 『世宗實錄』, 세종7년(1425) 1월 23일; 『世宗實錄』, 五禮, 賓禮, 迎勅書儀; 『世宗實錄』, 五禮, 賓禮, 宴朝廷使儀; 『世宗實錄』, 五禮, 凶禮, 迎賜諡祭及弔賻儀. 즉 황제의 조서(詔書)를 맞이하는 영조서의(迎詔書儀), 황제의 칙서(勅書)를 맞이하는 의식인 영칙서의(迎勅書儀), 조정에서 사신에게 연회를 베푸는 연조정사의(宴朝廷使儀), 왕실에서 국상을 당하여 중국으로부터 시제(諡祭)와 조부(弔賻)를 내려준 것을 맞이하는 의식인 영사시제급조부의(迎賜諡祭及弔賻儀) 등으로 왕은 생전에 중국과의 외교의례

배경과 직결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만큼 국왕 생전에 행한 다례의식의 일부이므로, 사후에도 나라에 대소사가 생길 때마다 선원전에서 고유다례를 행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왕실에서 다례는 국왕 생전의 일상과 각종 의례뿐만 아니라 사후의 여러 공간에서 행해졌다. 일상의 음다생활 외에도 각종 의례, 즉 왕실의 경사인 진연에서 행해진 진연다례, 중국이나 일본 사신을 맞이할 때 행해진 접빈다례를 행했다. 또 사후에는 상장례 공간과 속제 공간에서도 다례를 거행하여 조선시대 왕과 관계된 다양한 공간에서 다례의식이 행해졌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선원전의 다례가 반드시 생전의 특정한 다례로부터 이어진 것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으며 기록상에서도 이를 명시한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선원전 다례는 왕의 일상생활 속 음다습관과 국왕으로서 주관하고 참여한 다양한 다례의식이 국장 기간에도 유지되었고, 국장을 마친 이후에도 단절시키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거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진전 가운데서도 선원전의 다례가 특별하고도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은 선원전이 궐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비유교식 제향인 다례를 거행하기에 보다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선원전은 제향의 대상이 선왕의 모습을 그린 어진이라는 점에서 생전의 일상적 생활이자 의식이었던 다례를 올리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었다고 여겨진다. 선원전 다례는 조선시대 왕실 제향의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유교식과 비유교식 제향 의례가 다른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도 동시에 조화롭게 공존한 사실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

에 다례의 주관자로 참여하였다.

선원전 다례의 구체적인 종류를 살펴보면, 시기와 목적에 따라 탄신다례, 삭망다례, 명절다례, 고유다례 등 다양하다.<sup>31</sup> 선원전 다례 중 특히 중요하게 거행된 다례는 탄신다례이다.<sup>32</sup> 탄신일에 선원전에서 작헌례(酌獻禮)나 다례를 올리던 의식의 연원은 생전의 탄일에 거행된 진연진찬의식 중 술과 차를 올리던 의식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임금의 탄일은 나라의 경축일로 신하들의 조하(朝賀)를 받고 잔치를 베풀며 죄수를 용서하여 사유(赦宥)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되었다. 그리고 임금보다 오히려 더 성대하게 치러지는 탄신일이 상왕, 상왕비, 태상왕, 태상왕비의 탄일로, 부모님의 장수(長壽)야말로 나라의 경사이기 때문이다. 정성껏 준비하여 치러지는 왕실의 연향에서는 주인공에게 술, 음식, 차를 순서대로 올렸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맞는 탄신일의 다례는 연향 중에 거행되지만, 돌아가신 이후에 돌아오는 첫 탄신 다례는 국장 기간에 치러진다. 원래 흥례기간 내내 조상식과 석상식 사이의 낮 시간에 차를 올리는 의식으로 주다례를 행하였다. 그 중에 탄신일을 맞게 되면 빈전 혹은 혼전에서 전작례(奠酌禮)와 탄신다례를 행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맞는 생신은 지극히 기쁜 날이지만 아버지가 부재하신 상황에서 돌아온 생신은 더 큰 상실감과 그리움이 밀려오는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상 중에 탄신일을 맞게 되면 빈전, 혼전 또는 산릉에서 전작례, 작헌례, 다례 등을 특별히 거행하였다.<sup>33</sup>

일상에서 그리고 탄일에 술과 차를 올리는 행위는 국상기간뿐만 아니라 탈상을 한 이후에도 이루어졌다. 매년 돌아오는 선왕의 탄신일에 진전에서 는 다례나 작헌례를 올렸고 특히 선원전에서는 탄신다례를 중요하게 쳤

31 조선시대 다례는 넓게 볼 때 제례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제례의 기능을 수행한 독특한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이옥(2008), 앞의 논문, 270쪽.

32 『承政院日記』, 고종5년(1866) 5월 25일.

33 『承政院日記』, 고종1년(1864) 6월 11일; 고종2년(1865) 6월 12일; 고종35년(1898) 9월 22일; 고종35년(1898) 9월 22일 기사 등.

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선원전에 대해 ‘초하루와 보름마다 왕이 친히 분향 전배하며 탄신일에는 다례를 지낸다’라고 하였다.<sup>34</sup> 선원전에서 작헌례와 다양한 다례가 행해졌겠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특별히 탄신다례만을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선원전의 탄신다례가 중요한 의식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선원전의 탄신다례는 영희전 의식과도 비교해볼 수 있다. 고종대 『태상지』에서는 영희전에서 여섯 분(태조·세조·원종·숙종·영조·순조)의 어진을 대상으로 지낼 오명일납일대제(五名日臘日大祭)의 제물과 단자가 실려 있고, 선원전에서 여섯 분(영조·정조·순조·익조·헌종)의 어진을 대상으로 지내는 탄신다례와 작헌례가 실려 있다.<sup>35</sup> 또 대한제국기 국가에서 지내는 제사를 정리한 『국조사전』을 보면 영희전 부분에서는 『태상지』와 마찬가지로 정조, 청명, 단오, 추석, 동지, 납향에 향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선원전 부분에서는 탄신다례만이 기록되어 있다.<sup>36</sup> 물론 선원전에서 다양한 시기와 목적을 위한 다례와 작헌례를 올렸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탄신다례를 중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37</sup>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선원전의 다례에는 유교식 제례가 지닌 엄격한

3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 備考卷, 東國輿地備考 卷1.

35 영조대 영희전에서는 정조,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납일 등의 속절제를 지내고 육향 중에서 한번은 친제를 올릴 것을 정식화하였다. 영희전과 선원전에서 여러 성격의 진전 제향을 각 공간의 특징에 맞도록 나누어 지낸 것을 알 수 있다.

36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궐내 태조고황제 탄일 10월 11일, 숙종대왕 탄일 8월 15일, 영조대왕 탄일 9월 13일, 정조선황제 탄일 9월 22일, 순조숙황제 탄일 6월 18일, 문조익황제 탄일 8월 초9일, 헌종성황제 탄일 7월 18일, 세조인효대왕 9월 29일, 원종장효대왕 6월 22일, 철종장황제 6월 17일, 고종태황제 7월 25일, 합 11차 다례.’

37 선원전에서 선왕의 탄신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에는 작헌례를 올리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선왕의 육갑과 같은 큰 의미가 있는 탄신일이나 태조 고황제 어진을 진전 봉안한 뒤 맞는 태조의 첫 탄신일 등에 다례 대신 작헌례를 올렸다.

규정에서 일상적인 의례 혹은 기존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상을 모시고자 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sup>38</sup> 왕실 다례는 왕의 일상생활, 연향, 상장례에서 꾸준히 행해지고 다양한 목적과 상황을 폭넓게 수렴하는 의례로서, 궁궐 내의 제향공간인 선원전의 주요의례로 최종적으로 계승되었다. 선원전 다례는 궁궐 내에 위치한 덕분에 왕이 자주 참여할 수 있는 의례이자 일상적이고 가족적인 의례로 기능하였다. 조선 왕실제사의 중심축은 종묘 제례라는 유교식 제사가 점유하고 있었지만 선원전 다례와 같은 다양한 맥락의 비유교식 제향이 존속했다는 점에서 조선왕실 제향에는 유연한 변용과 시의성(時義性)이 존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Ⅲ. 선원전 다례진설과 절차

선원전 다례는 넓은 범주에서 왕실 제향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왕가(王家)의 사적인 의식이자 왕을 비롯한 왕의 가족 그리고 최측근 신하만이 참여하여 거행되었기 때문에 행례 횟수에 비해 구체적인 자료가 드문 편이다. 정순왕후의 언급대로 ‘내외 자소의 다례 행사는 참으로 집안사람의 예’이므로 공식적인 기록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유교식 의례에서 사용하는 희생이 제물로 사용되지 않고 유교식 의례 절차인 음복례가 생략되었다는 점 등 선원전의 여러 가지 비(非)유교식 요소들도 당시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선원전 다례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던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선원전 다례가 구체적인 의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왕실의 중요한

---

38 이에 관한 다례의 속성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옥 선생님의 선행연구 외에도 조인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며,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의례로 인정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왕실의 주요 관찬사료에 선원전에서 행한 다례, 즉 탄신다례, 고유다례, 별다례, 동지다례, 정조다례, 고유별다례 등이 거행되었다는 사실이 단편적으로나마 꾸준히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기록되는 횟수도 점차 증가하여 선원전 다례가 중시되는 경향을 짐작할 수 있으나, 유교식 정제(正祭)가 아닌 이유로 국가전례서의 관문을 넘지 못했기 때문인지 영조대 『국조속오례의』나 정조대 『춘관통고』 등에는 선원전 의주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후기부터 관찬서에서 선원전 다례가 짧지만 지속적으로 기록되었고, 고종 10년(1873)에 편찬된 『태상지』에 이르러서는 선원전의 의례로 작헌례와 탄신다례를 명기하기에 이른다.

진전에는 의례로써 다례와 작헌례를 거행했는데, 그 경중(輕重)을 비교하면 작헌례를 더 공식적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으로 궐 밖에 위치한 영희전의 작헌례가 선원전의 작헌례보다 우선적으로 기록되었고, 선원전 의례 중에서도 작헌례가 다례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 선원전 작헌례에 대해서는 영희전 작헌례와 동일하다는 식으로 간략하게 기록되는 경우가 많고 선원전 다례에 관한 기록은 그 보다 더 간략하고 희소하다. 그렇다고 해서 선원전의 다례 행례 횟수가 적거나 소홀하게 여겨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태상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선원전 다례만을 특별히 명시하였고, 이후 살펴볼 선원전 제기에서도 다례용 제기가 작헌례용 제기와 견주어 부족한 부분이 없이 최고급 왕실 기명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전 다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영희전보다 선원전이 더 내부적인 공간이고, 작헌례보다는 다례가 비유교식이자 비공개적인 성격이 강한 의례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본 장에서는 선원전 다례진설도를 분석하고 그 외 선원전과 영희전의

작헌례진설도 등을 비교하여 선원전 다례의 진설방식을 해석하고 특징을 파악하겠다. 또 선원전 다례진설도가 매우 희소한 가운데, 선원전 의례가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전통적인 체제를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했다고 여겨지므로 일제강점기 기간의 선원전 의례 관련 자료들까지도 최대한 수합하여 비교하겠다.<sup>39</sup>

일반적으로 다례는 차를 올리는 의례이고 작헌례는 술을 올리는 의례라고 분류되고 있다. 물론 다례에서 차를 진설하는 것은 분명하나 실상 다례에 오로지 술을 배제하고 차만 올리는 것은 아니었다. <영조탄일진설도>, <선원전고유다례진설도> 외 다례의 의주 등을 살펴보면, 선원전의 다례에서 차와 함께 술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마찬가지로 영희전의 작헌례의주나 <영희전절향진설도> 그리고 선원전 작헌례 의주나 <선원전작헌례진설도> 등을 살펴보면 술과 함께 차를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다례 중 차를 진설만 할 뿐 차를 올리는 진다의식이 의주에서 생략되어도 다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는 다례에 관한 기존 인식, 즉 차가 중심이 된 의례만을 다례라 부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으로 진전의 다례와 작헌례 모두 차와 술을 올리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작헌례와 다례의 진설방식은 각각 술과 차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혹은 술과 차를 모두 진설한 상을 올려놓고, 술을 올릴 때에는 작헌례라 부르고 차를 올리면 다례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 선원전 작헌례와 다례에 관한 구체적인 의주가

---

39 자료의 성격상 조선후기,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의 선원전 다례와 작헌례는 시기별로 분리하여 분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선원전 다례진설과 관련된 자료들이 희소할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까지 큰 이변 없이 정형화되어 유지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조선후기 이후의 자료들도 함께 비교하겠다.

부족하여 단언할 수 없으나, 진설도와 의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원전 다례는 단일한 방식보다는 일정한 범주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즉 선원전 다례나 작헌례의 운용에서, 다례에서 오로지 차만 올린다거나 역으로 작헌례에서 오로지 술만 올리는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구분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탁에 차와 술을 함께 올리는 진전 의식은 『춘관통고』 「속의영회전속절」의 진설도에서부터 확인된다(도5).<sup>40</sup> 진설도 상으로 신위 앞의 협탁에 3개의 잔이 올려져 있는데 이 잔들은 사준(沙尊)의 향온(香醢)을 담은 잔들이다. 차는 잔에 담겨 술잔의 바로 뒷 줄에 놓이는데 대개 이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조선초기 혼전의 기능이 끝난 원묘로써의 문소전 의례(사시속절·삭망·선고유사유이환안)에서는 술만 올릴 뿐 차를 올리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조선후기 영회전 속절제에서는 술과 함께 차를 올려 비교된다. 영회전에서 술과 함께 차를 올리는 방식의 연원은 조선왕실 흥례의 주다례에서 술을 담은 세 개의 잔들과 함께 작설차를 담은 잔을 함께 진설하던 방식과 일맥상통한다(도4).

선원전 탄신다례의 진설모습은 고종대 선원전에 모신 일곱 왕의 탄일에 차려지는 진설도를 엮은 책인 『이실각절제수진열기』를 통해 알 수 있다(도6).<sup>41</sup> 진설도에는 술을 담은 3개의 잔과 함께 차를 담은 잔인 다종(茶鍾)이 그려져 있다. 이 진설도는 선원전의 탄신다례의 모습일 가능성이 큰데, 대체로 다례에 진설하지 않는 편육, 절육 등의 육선(肉膳)이 진설되었던 점도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다례는 불교의 영향으로 육선이 아닌 소선(素膳)을 위주로 제물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탄신다례의 경우 고기도 진설했다는 점에서 다례가 정형화된 방식으로만 고수된 의례가 아니라

40 『春官通考』, 續儀永禧殿俗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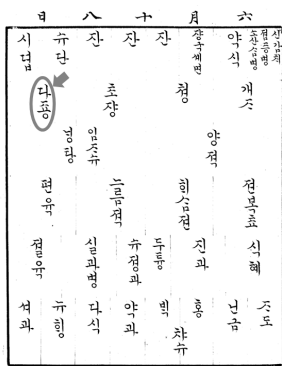
41 『二室各節祭需陳列記』(장서각 K2-2545).

상황과 목적에 맞도록 변형할 수 있는 탄력적인 방식의 의례였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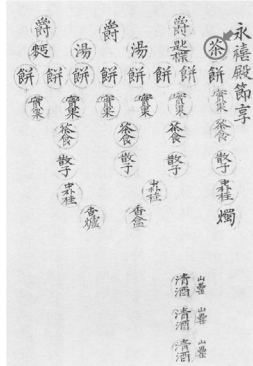
한편 대한제국기에 편찬된 『대한예전』에는 선원전 다례에 대한 내용이 실리지 않았다. 다만 선원전 작헌에 대해서는 영희전의 절향과 같다고 하였는데 <영희전절향진설도>를 보면 술을 담는 작뿐만 아니라 차를 담는 다기가 함께 놓여있다(도7).<sup>42</sup> 구체적으로 보면 영희전 각 실에 찬탁과 협탁이 놓이는데, 협탁의 1행에 각색병 9기, 2행에 면, 탕 시접과 함께 차가 놓이고 3행에 세 개의 작이 올라간다. 영희전의 작헌의식은 산퇴에 담긴 청주를 작에 담아 올리는 의식이지만 차도 함께 올렸다는 점에서 술과 차가 함께 진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예전』의 의주에는



도5-〈영희전속절진설도〉, 차를 진설한 위치(화살표 표시), 『준관통고』, 장서각



도6-〈영조탄일다례진설도〉, 다종을 진설한 위치(화살표 표시), 『이실각절제수진열기』, 고종, 장서각



도7-〈영희전절향진설도〉, 차를 진설한 위치(화살표 표시), 『대한예전』 권3, 장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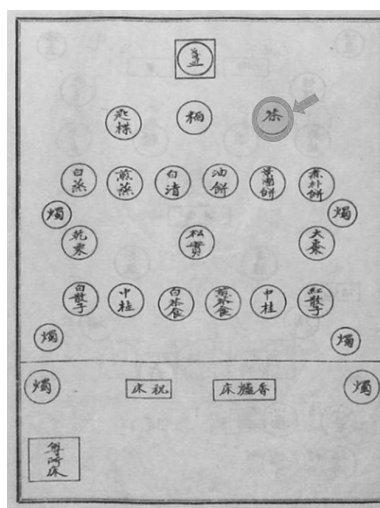
42 대한제국 사례소 저, 임민혁·성영애·박지윤 역, 『국역대한예전』 상(민속원, 2018), 374-376쪽; 『대한예전』 <영희전절향진설도>.

영희전의 절향은 선원전, 경기전, 준원전, 화령전 작헌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선원전의 작헌례 경우에도 술과 함께 차가 진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 자료이기는 하지만 1937년 이왕직 예식과에서 편찬한 『홀기진설도』에 선원전에서 거행한 작헌례와 고유다례의 홀기와 진설도가 수록되어 있다(도8, 도9). 홀기 중 <선원전다례진행홀기>에는 ‘사배-삼상향-집잔헌찬-집잔헌잔-집잔헌잔-서병정저-진다(進茶)-사배-철저’의 다례 진행 순서가 기록되어 있다.<sup>43</sup> 여기서 집잔헌잔은 준소에 술을 담아 올리는



도8-〈선원전작헌례진설도〉, 차를 진설한 위치(화살표 표시), 『홀기진설도』, 이왕직, 1937, 장서각



도9-〈선원전고유다례진설도〉, 차를 진설한 위치(화살표 표시), 『홀기진설도』, 이왕직, 1937, 장서각

43 李王職 禮式課, 『笏記陳設圖』(장서각 K2-2587). 왕실 제향에서 가장 중요한 기종을 꼽자면 작과 잔이다. 찬물도 중요하지만 술과 차를 올리는 의식은 제향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술을 작에 담아 올리는 세 번 올리는 절차는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라고 하고 술을 잔에 담아 올리는 절차를 집잔헌잔이라고 하며 차를 올리는 절차를 진다라고 하는데 이 절차들 모두 제향의례의 핵심이다.

의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제향과 동일하다. 이 의식이 다례로 분류되는 이유는 진다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진다 의식의 유무가 일반적인 제향과 다례의 속성을 구분시켜 주는 요소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제향에서 먼저 술을 올리는 의식(집잔헌잔)을 행한 후 차를 올리는 의식(진다)으로 이어지는 의례를 다례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선원전고유다례에서는 ‘사배-삼상향-집잔헌잔(단헌)-서병정저-진다-사배-철저’의 순으로 진행하여 고유다례의 경우는 앞의 경우와 달리 단헌의 술을 올린 후 차를 올리는 의식인 것을 알 수 있다.<sup>44</sup>

또 진설도를 통해 작헌례와 고유다례의 제물의 차이도 드러난다(도8, 도9, 표1). 작헌례와 고유다례에 공통으로 올라가는 것은 술, 차, 면, 증류, 병류(꿀 포함), 과실류, 산자류, 유밀과류이다. 그 중 작헌례에만 올라가는 것은 탕, 편, 적, 초류여서 주로 육선류인데 비해 고유다례에만 올라가는 것은 다식류이다. 고유다례의 진설을 모든 다례 진설방식에 적용할 수 없지만 다례 중 비교적 간략한 다례의식의 진설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영희전과 선원전에서 술을 올리는 의례를 다례라고 했을까? 우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교식 제사에서 술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과 진전 의례에서 차를 함께 올리는 기존 관습이 복합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타협책으로 술을 올려 제향의 형식을 갖추면서도 다음 줄에 차를 함께 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술을 올리는 제향에서 진다의식이 추가되거나 혹은 진다를 하지 않더라도 차를 함께 진설하는 자체만으로도 다례로도 분류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유교식 의례에서 술의 위치가 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차의 존재만으로도 다례란 속성을 갖춘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통해 조선시대 왕실제사에서 차의 상징적

---

44 李王職 禮式課, 『笏記陳設圖』.

표1- 선원전 작헌례와 고유다례의 제물 비교, 『홀기진설도』, 이왕직, 1937, 장서각

종류	작헌례	고유다례
술류	술	술
차류	차	차
면류	면	면
탕류	雜湯, 生鮮湯	-
편류	豬肉熟片, 豬肉熟片, 豬豆熟片, 豬肉片	-
적류	生鮮炙, 鷄炙, 泡炙	-
초류	醋薑	-
증류	魚蒸, 煎蒸	白蒸, 煎蒸
병류	煮朴餅, 山蔘餅, 油餅, 景團餅, 切餅	油餅, 景團餅, 煮朴餅
꿀류	白淸	白淸
과실류	大棗, 榧子, 松實, 胡桃, 乾栗	乾栗, 松實, 大棗
산자류	白散子, 紅散子	白散子, 紅散子
박계, 약과류	中桂, 藥果	中桂
다식류	-	白茶食, 煎茶食

속성이 강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술을 위주로 한 제사가 공고하게 구축되었지만, 여전히 다례는 조선왕실 의례에서 포기할 수 없는 성격의 의례로서 유교의 엄격한 법식에서 벗어나 조상의 생전 습관과 경험들을 기억하고 유지하기 위해 관습적이고 정서적인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sup>45</sup>

#### IV. 선원전 다기의 구성과 특징

조선후기 선원전의 성격에 부합하는 기종, 재질, 조형을 갖춘 제기가

45 작헌례와 다례는 술과 차라는 이분법적 기준만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의례의 속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용어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선택되는 과정을 여러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초기기록은 Ⅱ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정조대부터 이다.

1778년 정조는 창덕궁 선원전 제기들의 개수가 지나침을 거론하면서, 태조와 영조의 어진 봉안실에 46기의 은기(銀器)를 새롭게 제작하여 구비하도록 하였다.<sup>46</sup> 또 제물 중에 겹치거나 긴요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줄이라고도 명하였다. 예조에서 각 실마다 46기에 이르는 은기를 마련하려면 상당한 양의 은이 필요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다는 문제를 거론하자, 정조는 호조에서 재원인 은을 내려주어 은기를 조성하게 하되 모양과 크기를 맞추기 위해 견양(見樣)도 마련해 주도록 지시했다.

정조의 조치는 일견 선원전 제기의 규모가 축소되고 의례의 비중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기존에 비체계적으로 선원전 의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원전 제기 제도를 확립하여 선원전 의례를 왕실의 중요한 의례로 자리매김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도 읽을 수 있다.<sup>47</sup> 제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은의 양이



도10-속제용 준, 속제용 잔, 『국조오례의서려』 길례 제기도설

46 『日省錄』, 1778년(정조2) 1월 20일.

47 정조는 기존에 비교적 비체계적으로 운영되던 제기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립하고 관리하는 방침을 세웠는데 선원전 제기제도 정립도 비슷한 맥락의 조치이다. 정조는 즉위 초기부터 각 향소제기의 허술한 관리를 문제로 여겨 지속적인 관리 지침을 내렸고 이 지침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자, 정조 15년(1791) 각 능·원·묘의 제기를 일체 보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조 16년(1792)에는 호조의 건의로 왕실 제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기의 기면에 각 능호와 제작년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陵號年條制'를 실시하였다. 『正祖實錄』, 정조6(1882) 1월 23일. 이 외에





석전의도(紹熙州縣釋奠儀圖)』에 실린 문묘(文廟)용 제기와 진상도(陳祥道, 1053-1093)의 『예서(禮書)』에 실린 주(周)나라의 제기를 조합하여 구성되었고, 대표적인 기종은 변, 두, 보, 궤, 등, 형, 조, 이, 준, 퇴 등이 있다. 『세종실록오례』부터 『대한예전』에 이르기까지 국가전례서의 제기도설 부분에 정제용 제기 제도(형태·크기·재료·무늬 등)가 꾸준히 실렸다. 이는 국가적으로 정제용 제기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계승하고자 한 왕실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 속제용 제기는 유교 예서에서 참고한 것이 아니라 조선왕실의 일상 혹은 연향에서 사용하던 식기나 의례기의 기종과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속제용 제기의 기종은 잔, 발, 우리, 접시, 병, 사준 등으로 정제용 제기와 큰 차이가 있다.<sup>49</sup> 또 속제용 제기는 국가전례서의 제기도설에 거의 실리지 않았고, 속제용 제기 중 예외적으로 전례서에 실린 경우는 문소전과 영희전에서 사용한 사준(沙尊)과 술잔뿐이었다(도10).<sup>50</sup>

선원전 제기는 속제용 제기의 일부로써, 정제용 제기처럼 건국 초부터 건국 초부터 제도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선원전의 위상 변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정비되었다. 조선 초기 문소전의 별전으로 존재할 때는 선원전에서 별다른 제향을 올리지 않아 별도의 제기제도가 구비되지 않았으나, 조선후기부터 선원전에서 의례를 거행하면서 선원전 제기제도도 정립되기 시작했다.

우선 선원전 제기에 대한 중요한 기록으로 현종과 철종대 기록한 선원전 기명발기(器皿發記) 들이 있다. 이 자료는 조선후기 선원전 제기의 기종을

49 제기의 기종 외에도 채질, 문양, 수량의 차이가 존재하며, 근원전으로는 정제와 속제의 개념 그리고 각 제사에 상응하는 제수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조선왕실의 정제와 속제용 제기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것. 구혜인(2019), 위의 논문.

50 『國朝五禮儀序例』 卷1, 吉禮, 諸器圖說.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 자료에 속한다(도11, 표2).<sup>51</sup> <도11>의 발기는 4실(순조 어진 봉안실)과 5실(익종 어진 봉안실)의 제기를 조성하면서 작성한 기록인데, 제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각종 주기, 다기, 찬기, 향기 등의 다양한 기종들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수량이 약 50기에 이른다. 정조의 지침대로 대부분 은기로 제작되었으나 잔의 경우 특별히 옥, 금, 은, 백자 등 다양한 재질로 제작되었다. 옥, 금, 은이란 재질은 정제용 제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종류들이지만 속제에서는 사용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선원전에서는 그 사용 빈도가 두드러지게 높았다. 발기에 기록된 제기들의 총 수량도 정조대 정해진 46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조대 선원전 제기제도의 전체적인 골격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선원전 제기의 구성은 주기, 다기, 찬기, 조명기, 향기 등으로 이루어졌다(표2). 주기와 다기의 기종으로 옥받침이 있는 옥잔, 받침 있는 도금은잔, 해와 달이 장식된 은병, 손잡이 달린 주자인 은주초아, 옥받침과 도금한 뚜껑이 있는 옥잔, 목칠한 받침이 있는 백자잔, 유쟁반을 갖춘 찻잎 보관 그릇, 찻물을 우리기 위한 손잡이 달린 초아가 있다. 다음으로 찬기는 은침, 은시저, 은시접을 비롯하여, 각종 찬물을 담는데 사용하는 은소아, 은주발, 은대접, 은전자무늬합, 은과기, 은대중소접시, 은종자, 은진고반, 은서과반, 은탕기, 은절육기, 은적기가 있다. 그리고 향을 내는 기물로 은도금향로, 은향합, 동도금향합, 화리향시통이 있고, 실내 공간을 밝히는 도구로 두석중축대, 주석소축대, 화우리등이 선원전 실내에 갖추어졌다.

이 중에 다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기로는 도금한 뚜껑과 옥으로 만든 받침을 갖춘 진옥배(眞玉盃), 흑칠을 한 받침을 갖춘 백자잔(磁茶器),

51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丙午八月初六日眞殿第四室五室器皿發記」(1846), 「辛亥五月十七日眞殿第六室器皿發記」(1851)가 소장되어 있다.

표2- 현종대 선원전에서 사용된 제기목록(『병오팔월초육일진전제사실기명발기』, 1846)

용도	제기		수량	용도(필자추정)	
	한글	한자		다례용	작헌례용
주기 / 다기	*진옥배(도금개진옥대구)	眞玉盃(鍍金蓋眞玉臺具)	1좌	○	
	*자다기(칠대구)	磁茶器(漆臺具)	1좌	○	◇
	*은다엽표(개유쟁반구)	銀茶葉瓢(蓋鍮鈺盤具)	1좌	○	
	*은다초아(개구)	銀茶炒兒(蓋具)	1좌	○	
	진옥배(진옥대구)	眞玉盃(眞玉臺具)	1좌		◇
	은도금배개대구	銀鍍金盃蓋臺具	1대	○	◇
	은일월병	銀日月瓶	1쌍	○	◇
	은주초아(개구)	銀酒炒兒(蓋具)	1좌		◇
찬 기	은침	銀尖	1쌍	○	◇
	은시접	銀匙櫛	1좌	○	◇
	은시저	銀匙箸	1건	○	◇
	은소아	銀召兒	1개	○	◇
	은주발(개구)	銀周鉢(蓋具)	3좌	○	◇
	은대접	銀大櫛	3좌	○	◇
	은전자무늬함(개구)	銀篆字盒(蓋具)	3좌	○	◇
	은과기(우리구)	銀果器(于里具)	5좌	○	◇
	은대중소접시	銀大中小櫛匙	13좌	○	◇
	은종자	銀鍾子	3좌	○	◇
	은진고반	銀眞苴盤	1좌	○	◇
	은서과반	鍮西果盤	1좌	○	◇
	은탕기	銀湯器	3좌	○	◇
	은절육기	銀切肉器	1좌	○	◇
	은적기	銀炙器	1좌	○	◇
향 기	은도금향로	銅鍍金香爐(花梨臺具)	1좌	○	◇
	은향함	銀香盒	1좌	○	
	동도금향함	銅鍍金香盒	1좌		◇
	화리향시통(화저, 화시구)	花利香匙筒(火箸, 火匙具)	1좌	○	◇
조 명 기	두석중촉대	豆錫中燭臺	1쌍	○	◇
	두석소촉대	豆錫小燭臺	1쌍	○	◇
	화우리등	火于里燈	1좌	○	◇

뚜껑을 갖춘 은다초아(銀茶炒兒), 뚜껑과 쟁반을 갖춘 은다엽표(銀茶葉瓢)가 확인된다.<sup>52</sup> 그리고 차와 함께 진설하는 찬품을 담는 제기들도 있다. 주로 면, 떡, 꿀, 과일(밤·은행·대추), 산자, 중박계, 다식 등이 차와 함께 진설되는 것으로 보아 면을 담는 대접, 떡을 담는 합, 꿀을 담는 종자, 열매를 담는 과기, 유밀과류를 담는 접시 등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철이 맞으면 참외나 수박을 전용 제기에 담아 올렸다. 또한 유밀과를 고일 때 사용하는 울타리 형태의 도구인 우리(于里, 隅里)도 기록되어 있어 접시 위에 우리를 얹어 진설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상이 철종대까지 마련된 선원전 제기의 기종들이다.

위의 내용을 통해 조선후기 선원전 제기는 기본적으로 정조대 큰 틀이 세워진 후 제도적으로 정착해 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선원전의 제기들은 주로 은으로 제작하되 작헌과 다례에서 사용하는 잔은 특별히 옥으로 만들어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조선후기 기명발기는 순조~철종대의 선원전 제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도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현전 유물도 희소하여 당시 선원전 제기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대한제국기에 선원전 제기의 전모를 도설과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의례가 처음으로 제작되었는데, 즉 『영정모사도감의궤』(1901)이다.<sup>53</sup> 의궤에 실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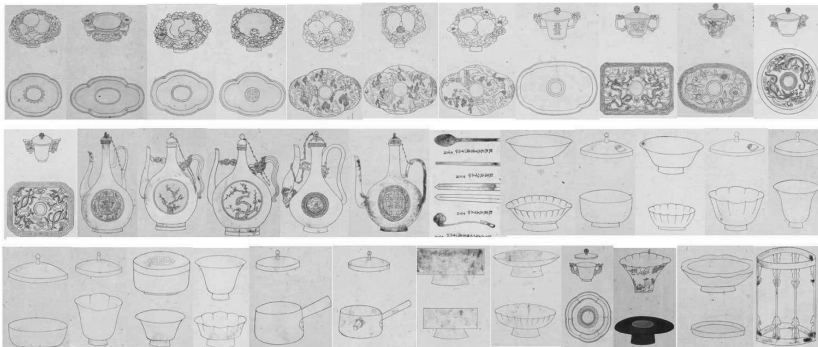
52 진옥배는 진옥으로 만든 다례용 잔으로, 발기에 두 종류의 진옥배가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뚜껑을 갖춘 진옥배를 다례용 잔으로 본 것은 이후 왕실 진찬의궤 도설 속 다기나 『영정모사도감의궤』 도설 속 옥잔 다기들 모두 뚜껑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작헌례용 진옥배에는 뚜껑이 없어, 다례용 진옥배에는 뚜껑이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다초아는 일종의 손잡이가 있는 다관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 차 잎을 우려내어 차물을 만드는 茶具이다.

53 대한제국기 경운궁 선원전에 큰 화재가 일어나 어진을 대규모로 모사하면서 제작된 의궤인 영 『영정모사도감의궤』에는 이례적으로 선원전 기명도설들이 실렸다. 1월부터 7월(태조·숙종·영조·정조·익종·순조·헌종)에 이르는 어진 봉안실에 진설될 각각의 제기들의 기종, 형태, 문양 등을 세밀한 도설로 실고, 그 옆에 크기,

풍부하고 세밀한 도설들은 대한제국기 선원전 제기를 보여주고 있다. 도설 속 제기의 기종은 헌종~철종대의 선원전제기발기에 나타난 기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자료는 조선후기 선원전 제기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도 있다(도12-도17, 표3).

우선 도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양한 조형으로 이루어진 다례와 작헌례용 잔들이다. 다른 기종들의 경우 어진봉안실마다 동일한 조형의 제기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례와 작헌례용 잔의 경우 각실마다 조형이 상이하다. 일곱 어진실마다 진설되는 작헌례와 다례용 잔들을 모두 그림으로 그려 도설로 실었기 때문에 전체 도설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하다.

다례용 옥잔들의 경우, 기축이 사선으로 내려오는 종 형태의 잔이며 양측면에 각각 손잡이가 달려있다(도13, 도14, 표4). 그리고 구슬형태의 손잡이가 달린 금 재질의 뚜껑과 타원이나 사각 형태의 옥 재질의 받침을 갖추고 있다. 다례용 잔의 세부적인 장식은 모두 다르지만, 손잡이가 부착된



도12-경운궁 선원전에서 사용된 제기의 도설,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규장각

재료, 용도도 병기하였는데 이 정도로 왕실의 제기를 의궤에 실은 사례는 대사급 정제용 제기 외에는 없었다.

표3- 경운궁 선원전 제기의 조형 구분과 종류  
 (『영정모사도감의궤』, 1901년, 알파벳은 도설의 기형종류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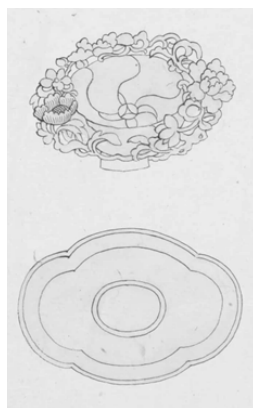
제기	각실별 제기 종류							용도(필자추정)	
	1실 태조	2실 숙종	3실 영조	4실 정조	5실 순조	6실 익종	7실 헌종	다례용	작헌례용
진옥잔(잔대)	A	B	C	D	B	B	E	○	
은다기(진칠잔대)	1실~7실 同							○	◇
은작설다기	1실~7실 同							○	◇
진옥잔(잔대)	A	B	C	D	E	F	G		◇
순금잔(순금잔대)	1실~7실 同							○	◇
은병	A	B	C	D	E	E	A	○	◇
은주기	1실~7실 同							○	◇
은시저	1실~7실 同							○	◇
은시접	A	A	A	A	B	A	A	○	◇
은접시	A	B	A	A	A	A	A	○	◇
은진고기	A	B	A	A	A	A	A	○	◇
유서고기	1실~7실 同							○	◇
은주발	A	A	A	B	B	A	A	○	◇
은종자	1실~7실 同							○	◇
은엽표	1실~7실 同							○	◇
은병합	1실~7실 同							○	◇
은식혜기	A	B	B	A	A	A	A	○	◇
은당보아	1실~7실 同							○	◇
은접시	1실~7실 同							○	◇
은접시	1실~7실 同							○	◇
은적기	1실~7실 同							○	◇
은절육기	1실~7실 同							○	◇
은접시	1실~7실 同							○	◇
은우리	1실~7실 同							○	◇
유쟁반	1실~7실 同							○	◇
향로	A	A	A	B	B	B	B	○	◇
향합	A	A	A	B	B	B	B	○	
향합	A	B	B	C	A	A	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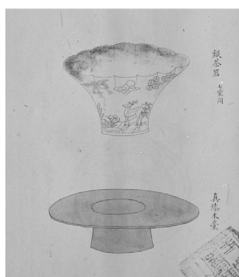
도13- 제7실 다례용 진옥잔, 사조쌍룡문 옥잔대,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도14- 제4실 다례용 진옥잔, 사조쌍룡문 옥잔대,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도15- 제3실 작헌례용 진옥잔, 옥잔대,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도16-1-은다기, 진칠목대,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장서각



도16-2-은다기,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도17- 백자양각장생문화형잔, 높이 6.5cm,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일본동경국립박물관

옥 재질의 잔, 구슬형 손잡이가 달린 금 재질의 뚜껑, 옥 잔받침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잔이란 점에서 일곱 실의 다례용 잔들의 전체적인 조형이 모두 비슷하다. 문양의 종류를 살펴보면, 기존에 왕실용 잔에서의 사용되지 않던 쌍용(雙龍)도상이 자주 사용되었고 이 외에 화문(花紋), 문자문 등으로 장식되었다. 전체적으로 다례용 옥잔은 손잡이가 양쪽에 달린 안정된 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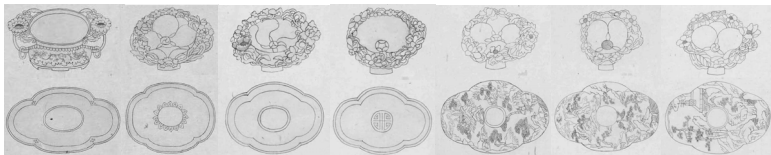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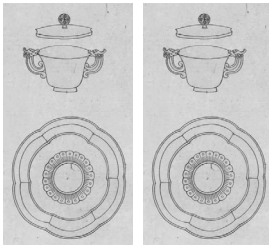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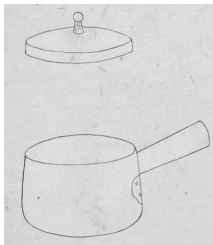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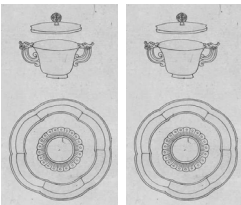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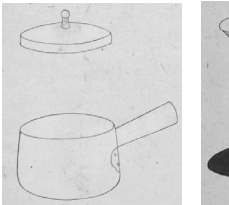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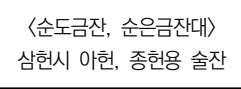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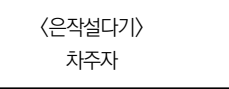


에 문양도 대칭으로 장식되어 단정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잔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작헌례용 옥잔의 조형은 매우 장식적이다(도15, 표4). 태조어진 봉안실인 1실을 제외 하고 나머지 봉안실의 작헌례용 옥잔들은 모두 고부조의 꽃 조각들이 비대칭적인 구도를 이루고 있다. 서로 엇힌 꽃대가 원형의 잔을 감싸고 있고 사이사이에 만개한 꽃들이 조각된 모습으로 잔이 마치 한 송이의 꽃처럼 보이도록 제작되었다. 또 다례용 잔의 도설은 잔의 전체적인 형태와 잔의 외부에 장식된 문양을 보여주기 위해 측면에서 바라본 형태로 그려졌다면, 작헌례용 잔의 도설은 잔을 둘러싼 고부조의 장식 뿐만 아니라 잔 내면의 모습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서 사선에서 내려다본 시선에서 그려졌다.

앞서 살펴본 진설도와 관련하여 다례용 옥잔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 잔이 오로지 ‘차’를 담기 위한 잔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일견 다례용 옥잔과 작헌례용 옥잔은 각각 차와 술을 담는 용도로 구분되었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살펴 보았듯이 고종대 『이실각절제수진열기』나 대한제국기 『홀기진설도』의 다례에서도 앞에 놓인 잔에는 술을 담고 다음 행에 차를 담은 잔이나 다종을 배치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도6, 도8, 도9). 즉 선원전 작헌례뿐만 아니라 다례에서도 술과 차를 함께 올렸는데 다례용 잔은 차를 담을 때도 있지만 의례에 따라 삼헌을 올릴 경우 초헌용 술을 담기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삼헌 중 아헌과 종헌용 잔으로는 매 실마다 2건씩 준비했던 순도금잔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표3, 표4). 기존 연구에서는 작헌례용 옥잔은 술을 담는 잔으로, 다례용 옥잔은 차를 담는 잔으로 추정했으나 선원전 진설방식을 살펴보았을 때 다례용 옥잔에 차뿐만 아니라 술을 담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된다. 정리하면 다례용 옥잔은 이미 잔의 명칭에서 ‘다례용’이라는 용도가 규정되어 다례에서

표4- 선원전 작헌례용과 다례용 제기 구성(『영정모사도감의궤』, 1901)

기종	1실	2실	3실	4실	5실	6실	7실
작 헌 례 용							
	〈진옥잔+진옥잔대〉 초헌용 술잔						
다 례 용							
	〈순도금잔, 순은금잔대〉 아헌, 종헌용 술잔				〈은주기〉 술주자		
다 례 용							
	〈진옥잔+진옥잔대〉 다례용 찻잔 / 삼헌시 초헌용 술잔						
다 례 용							
	〈순도금잔, 순은금잔대〉 삼헌시 아헌, 종헌용 술잔				〈은작설다기〉 차주자		
다 례 용							
	〈순도금잔, 순은금잔대〉 삼헌시 아헌, 종헌용 술잔				〈은다기〉 찻잔		
다 례 용							
	〈순도금잔, 순은금잔대〉 삼헌시 아헌, 종헌용 술잔				〈은다엽표〉 차합		

사용한 잔이라는 점은 분명하나, 오로지 차만을 담는 잔이라기보다는 다례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와 술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복합적 성격을 갖춘 잔이라고 할 수 있다(도13, 도14, 도18)

이와 비교하여 오로지 차를 담는 다기로만 사용되었다고 규정할 수 있는 제기는 은다기(銀茶器)이다(도16, 표4). 선원전의 다례는 물론이고 국상기간의 주다례를 비롯하여 영희전, 선원전의 작헌례에도 술과 함께 반드시 한 잔의 차를 올렸는데 이 때 사용된 제기를 오롯한 의미의 다기라고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영정모사도감의궤』의 은다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잔은 장수를 상징하는 사슴, 영지 등의 장생문(長生文)을 장식한 은잔으로 흑진칠을 한 잔받침을 갖추었다. 일곱 개의 어진 봉안실에서 사용하는 은다기는 모두 동일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잔이 바로 앞서 살펴본 진설도의 2행에 위치하는 다기 중의 한 유형인 것으로 (도6-도9).<sup>54</sup>

이를 근거로 현전하는 유물 중에서 백자에 양각기법이나 청화기법으로 장식한 잔들이 수 점 전세되고 있어 이 유물들의 구체적인 용도를 추정해볼 수도 있다(도17). 이 백자잔들은 진전기명발기에서 ‘자다기(磁茶器)’라는 명칭으로 기록된 잔으로써, 선원전에서 은다기를 제작하기 전에 사용되었을 백자(白磁) 재질의 다기였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선원전과 유사한 다른 속제에서 다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써는 전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기명발기의 기종이 『영정모사도감의궤』의 도설 속 기종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자다기가 은다기와 동일한 잔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후기 백자로 제작된 선원전 다기가 대한제국기에 은기로 격상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이로써 현종~철종대 어진봉안실 기명발기와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

54 『影幀摹寫都監儀軌』(1901) 圖說 ‘銀茶器 七室同’.

를 통해 선원전 다례용 제기의 기종과 특징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 V. 맺음말

---

본 연구에서는 주로 어진의 봉안처로 논의되어 온 선원전이란 제향공간을 '다례'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했다. 즉 선원전에서 거행된 다례의 연원과 의미, 다례의 진설방식과 절차, 다례용 제기의 구성과 특징 등을 통해 선원전과 다례와의 긴밀한 관계를 다각적으로 파악했다. 선원전 다례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희소하기 때문에 다례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나,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수합하여 선원전 다례의 특징을 추출하는데 주력하였다.

우선, 선원전 다례는 왕이 살아있을 때의 일상적인 음다습관이나 연향다례 그리고 국상기간 동안 빈전과 혼전의 주다례나 탄신다례와의 연속선상에 있다. 28개월 기간에 걸친 흉례가 끝나고 왕의 신주가 종묘에 모셔지면서 다례는 선원전이란 공간을 통해 존속될 수 있었다. 선왕에게 다례를 행하는 공간은 여타의 진전이나 산릉 등에서도 행해졌으나, 선원전은 생시에 생활하시던 궐내에서 다례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함이 있다.

선원전에서 거행된 다례의 종류는 시기와 목적에 따라 탄신다례, 삭망다례, 명절다례, 고유다례 등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탄신다례가 중시되었다. 탄일에 술과 차를 올리는 행위는 국상기간뿐만 아니라 탈상을 한 이후에도 이루어졌는데, 선원전은 탈상 이후에도 탄신의례를 다례로써 거행하는 제향공간으로 기능했다. 선원전 다례는 조선시대 왕실 제향의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를 보여주며, 유교식과 비유교식 제향이 독립적이면서도 조화롭게 공존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선원전 다례가 궐내에서 행해진 비유교식 의례인 까닭에 구체적인 절차가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왕실의 중요한 의례로 인정받은 것은 분명하다. 영희전 진설도, 선원전 진설도와 일제강점기의 자료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례에 차와 함께 술을 올리고 탄신다례에 육선을 올리기도 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다례는 원래 차를 올리는 의식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차뿐만 아니라 술을 함께 올리는 의례도 다례라고 불렀고, 역으로 술을 올리는 작헌례에서도 차를 함께 진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원전 다례에서 차뿐만 아니라 술을 올리는 것은 유교식 의례에서 술의 위치가 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진다의식을 하지 않고 차를 진설하는 것만으로도 다례란 자격을 갖추었다고 여겼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례가 비유교식 의례이고 차보다 술을 더 중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조선왕실 의례에서 다례는 포기할 수 없는 성격의 의례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현전하는 선원전 진설도에서 동일한 진설방식을 보이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 선원전 다례의 진설방식은 엄격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목적과 상황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선원전 제기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조선후기 정조대부터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다. 헌종~철종대 선원전기명발기를 통해, 선원전 제기의 전체 수량은 약 50기에 이르며 전체 제기 중 은기의 비중이 높고 술과 차를 담는 잔의 경우는 옥, 금, 은, 백자 등 다양한 재질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기는 진옥배, 자다기(대한제국기 은다기), 은다초아(대한제국기 은작설다기), 은다엽표 등이다. 실제 차를 담는 용도의 다기를 제외하고는, 각종 찬품을 담는 대부분의 제기들은

작헌례용 제기들과 겹친다.

조선후기에 선원전에서 사용된 제기들의 경우 도설이 남아있지 않아 명칭만 확인될 뿐 조형양식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선원전 다례용 제기의 조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료는 대한제국기에 편찬된 『영정모사도감 의례』(1901)로, 이 의례에 실린 도설들을 통해 선원전 제기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작헌례용 옥잔과 다례용 옥잔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대상에게 술이나 차를 담아 올리는 제기로 사용되었지만, 의례의 속성에 따라 다른 조형방식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제작되었다. 그리고 의례의 성격과 상관없이 오로지 차만을 담아 올리는 잔은 은다기라는 점을 확인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선원전 다례는 유교식 제례가 지닌 엄격한 규정의 속박에서 벗어나 망자와 보다 가까운 일상적인 방식의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선원전 다례는 유교식 정제와 진설방식에서 차이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선원전 다기는 정제용 제기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의례와 제기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글이 의례와 물질문화 간의 융복합적 연구로 확대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書經』.  
『禮記』.  
『朝鮮王朝實錄』.  
『國朝五禮儀序例』.  
『承政院日記』.  
『日省錄』.  
『春官通考』.  
『二室各節祭需陳列記』.  
『大韓禮典』.  
『正祖殯殿魂殿都監儀軌』(1800).  
『萬機要覽』(1808).  
『己丑進饌儀軌』(1829).  
「丙午八月初六日眞殿第四室五室器皿發記」(1846).  
『戊申進饌儀軌』(1848).  
「辛亥五月十七日眞殿第六室器皿發記」(1851).  
『戊辰進饌儀軌』(1868).  
『太常志』(1873).  
『丁亥進饌儀軌』(1887).  
『影幀摹寫都監儀軌』(1901).  
『壬辰進饌儀軌』(1901).  
『辛丑進饌儀軌』(1902).  
『笏記陳設圖』(1937).

### 2. 단행본

- 대한제국 사례소 저, 임민혁·성영애·박지윤 역, 『국역대한예전』 상. 민속원, 2018.  
신명호 외,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 해설과 역주』. 부경대학교역사문화연구소  
편, 2008.  
이옥, 『조선 왕실의 제향공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 3. 논문

- 강성금, 「조선시대 진전 탄신다례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구혜인, 「대한제국기 경운궁 선원전 禮器의 구성과 함의」. 『미술사학연구』 288, 2015, 121-154쪽.
- \_\_\_\_\_, 『조선시대 왕실 제기(祭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신명호, 「조선시대 진연다례의 자료와 특징」.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 해설과 역주』, 부경대학교역사문화연구소편, 2008, 200-208쪽.
- 안선호, 「조선시대 진전 건축과 운영」. 『조선 왕실의 어진과 진전』, 국립고궁박물관, 2015, 222-231쪽.
- 이승란, 「中國法門寺地宮茶具와 통일신라 茶文化」. 『先史와 古代』 32, 2010, 32-70쪽.
- 이욱, 「조선시대 제향다례의 자료와 특징」.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 해설과 역주』, 부경대학교역사문화연구소편, 2008, 268-289쪽.
- 장남원, 「고려시대 茶文化와 靑瓷-청자茶具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24, 2007, 129-162쪽.
- \_\_\_\_\_, 「물질문화 관점으로 본 고려청자」. 『미술사와 시각문화』 18, 2016, 154-179쪽.
- \_\_\_\_\_, 「소비유적 출토 陶瓷로 본 고려시대 청자의 수용과 다례의 관계」. 『역사와 담론』 59, 2011, 389-420쪽.
- 정영선, 『다례제사의 연원과 전개 및 그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4. 도록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 왕실의 어진과 진전』. 2015.



## 국문초록

본 글은 조선후기와 대한제국기에 운영된 선원전 다례와 다기의 관계에 대해 논한 연구이다. 선원전은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차를 올리는 의식인 다례가 거행된 공간이었다. 선원전 다례는 조선시대 왕실 제향의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를 보여주고, 유교식과 비유교식 제향 의례가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조화롭게 공존한 사실을 시사한다.

선원전 다례는 왕실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일상 생활, 연향, 상장례 등에서 행해지던 다양하고 복합적인 속성의 다례의 연장선상에 있다. 선원전이 궁궐 내에 위치한 덕분에 다례를 자주 거행되는 공간이 되었고, 선원전 다례는 엄격한 유교식 제사가 아닌 보다 일상적이면서 가족적인 의례로 인정받았다. 선원전에서 거행된 다례의 종류는 시기와 목적에 따라 탄신다례, 삭망다례, 명절다례, 고유다례 등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탄신다례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탄일에 술과 차를 올리는 행위는 국상기간뿐만 아니라 탈상을 한 이후에도 이루어졌는데, 선원전은 탈상 이후에도 탄신의례를 거행하는 중요한 제향공간으로 기능했다.

다례는 원래 차를 올리는 의식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선원전 진설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례의식에서 술을 함께 올리고 탄신다례에 육선을 올리기도 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차뿐만 아니라 술을 함께 올리는 의례도 다례라고 불렀고, 역으로 술을 올리는 작헌례에서도 차를 함께 진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례에 차뿐만 아니라 술도 올리는 것은 당시 제사에서 술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례가 사라지지 않고 존속한 것은 다례를 조상제향의 일부로 유지시키고자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현전하는 선원전 진설도에서 동일한 진설방식을 보이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 선원전 다례는 목적과 상황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조선 후기 선원전 제기제도는 정조대부터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다. 헌종~철종대 선원전기명발기를 통해 선원전 제기의 전체 수량은 약 50기에 이르며 특히 잔의 경우 전체 제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특별히 옥, 금, 은의 다양한 재질로 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직접적으로 차와 관련된 제기는 진옥배, 자다기(대한제국기 은다기), 은다초아(대한제국기 은작설다기), 은다엽표 등이다. 그 외 찬기, 향기, 조명기 등이 있으며 실제 차를 담는 용도의 다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작헌례용 제기와 겹친다. 대한제국기에 편찬된 『영정모사도감의례』(1901)를 통해 보면 작헌례용 옥잔과 다례용 옥잔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대상에게 술이나 차를 담아 올리는 제기로 사용되었지만, 의례의 속성에 따라 다르게 불리고 다른 조형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이처럼 선원전의 다례는 진설방식과 제기 구성으로 보았을 때 일상의 모습과 가까운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선원전 다례는 유교식 정제와 진설방식에서 차이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선원전 다기는 정제용 제기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의례와 제기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투고일 2019. 12. 23.

심사일 2020. 2. 7.

게재 확정일 2020. 4. 29.

주제어(keyword) 선원전(Seonwonjeon), 영희전(Youngheejeon), 진전(jinjeon, halls of royal portrait), 조상제사(ancestral rites), 다례(tea ceremony, darye), 제기(ritual vessels), 다기(tea wares)

## Abstracts

### The tea-ceremony and ritual vessels of Seonwonje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to the Korean Empire

Koo, Hyein

This article specifically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ritual vessels and the arrangement and presentation system of the tea ceremony (darye) held in Seonwonjeon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o the Korean Empire. Seonwonjeon Hall was a place where the tea ceremonies were held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o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tea ceremony performed in the space of Seonwonjeon was an example of various and flexible forms of royal ancestral rites held during the Joseon Dynasty. Also, it can be said that Confucian and non-Confucian rituals were harmoniously coexisted.

The tea ceremony performed in Seonwonjeon is an extension of those with the various and complex attributes that have been performed at the everyday tea ceremony, banquets, and funerals, traditionally handed down from the royal family. Since Seonwonjeon was located inside the place, the tea ceremonies were frequently held. They were recognized as more common and family rites by breaking away from strict Confucian ritual. The types of the tea ceremonies held at Seonwonjeon Hall vary depending on the timing and purpose of the ceremony, and among the diverse tea ceremonies, the birthday tea ceremony was considered especially important.

The tea ceremony was originally thought to be a ritual to serve tea, bu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able setting pictures of Seonwonjeon confirmed that liquor was served at the tea ceremony and meat was served at the birthday tea ceremony. Additionally it is believed that the tea ceremony which was not only filled with tea but also the liquor was valued at the memorial service.

Meanwhile, the Seonwonjeon ritual vessels system was establish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total quantity reaches about 50 units, and a high portion of that was silver ware. Especially in the case of ritual cups, jade, gold and silver materials are the main ingredients. The ritual vessels related to the tea ceremonies include jade cups, white porcelain cups (silver cups in the Korean Empire), silver teapots and a bowl for tea leaves. In addition,

there are containers for foods, scents, and lighters.

According to the book titled 『Yeongjeongmosa-dogam uigwe』(1901), cups made of jade for wine ceremony and tea ceremony were used as ritual vessels for the same object in the same space, but were call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ceremony and produced in a different formation. Regardless of the type of the ceremony, it was confirmed that the cup used only for tea was silver tea cup.

Seonwonjeon'tea ceremony is a routine ritual that is closer to the deceased, free from the strict rules of Confucian rites. In addition, the tea wares of Seonwonjeon Hall was different from the Confucian ritual vessels and at the same time the vessels were used to serve alcoholic beverages, indicating that the ritual ceremonies and ritual vessels were closely related.